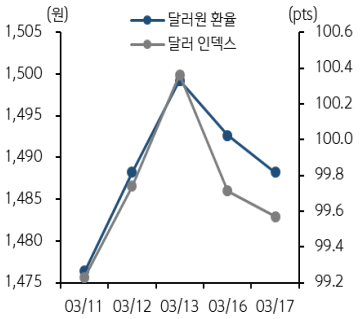
Daily
FX Economist View

2026-3-18

# 전쟁은 곧 인플레이션인가

## 외환시장




## FX Talk : 금일 1,482~1,492원 전망

**동향** 어제 달러·원 환율은 1,490원에 개장한 뒤 모처럼 방향성이 흐렸습니다. 현재 국면에 시장이 적응한 듯, 연장 시간대를 포함해 하루 변동폭이 10원 이내로 들어온 것은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3시 30분 서울 종가 1,493.6원을 기록했고, 연장 시간대에는 달러화가 완만하게 흘러내리면서 새벽 2시를 1,488.4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망** 간밤 역외 최종 호가 감안시 오늘 달러·원 환율은 1,487원 부근에 개장 전망입니다. 어제 이스라엘이 야간 공습으로 이란 안보 사령탑을 제거하는 등 전쟁의 출구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 공급망 부담은 커져가지만, 교전의 강도가 고조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환율 상단이 단기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기대합니다.

| 전망치 | 예상 레인지 | |
|---|---|---|
| | 저점 | 고점 |
| 달러원 | 1,482 | 1,492 |
| 달러엔 | 158.5 | 159.4 |
| 유로달러 | 1.150 | 1.158 |

## FX Insight : 전쟁은 곧 인플레이션인가

전쟁 소식이 들리면 흔히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두자는 심리지요. 다만, 이번 중동 전쟁은 에너지 공급망을 직격했으니 석유 등 에너지가 대상이 되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지금 각국은 자국내 연료 확보를 위해 수출 제한 등 보호주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 불안을 여러 번 정당화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1970년대 오일쇼크,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의 에너지·곡물 가격 폭등까지. '전쟁 = 인플레이션'이라는 공식은 상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공식, 천편일률적일까요?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급 충격. 전쟁이 에너지나 식량 수출의 핵심 지역에서 벌어지면, 충격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집니다. 유가가 오르고, 운임이 오르고, 결국 생필품 물가가 오릅니다.

둘째는 정부 지출 확대. 전쟁은 국방비를 늘리고 재정 적자를 키웁니다. 돈이 더 풀리면 수요가 늘고, 공급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수요가 늘면 물가는 오릅니다. 셋째는 기대심리. 사람들이 "앞으로 더 비싸질 것"이라고 믿으면, 기업은 먼저 가격을 올리고 노동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불안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거나, 에너지·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정부와 중앙은행이 발 빠르게 대응하면 물가 충격은 생각보다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 기간이 짧았거나 미미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전쟁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냐가 핵심입니다. 세 가지에 달렸습니다. '①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폭과 기간, ②국지전에 그치는지 확전되며 장기화되는지, ③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물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부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작동하는 법칙은 아닙니다. 연준에 떠넘길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 Key Chart

< 채권시장이 반영한 인플레 기대>

※ 10-year breakeven inflation rate :
시장이 예상하는 향후 10년의 평균 물가상승률

Economist 백석현
seokhyun100@shinhan.com
02-2151-2632

##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 구분 | 달러/원 | 위안/원 |
|---|---|---|
| 시가 | 1,490.0 | 216.3 |
| 고가 | 1,495.0 | 217.0 |
| 저가 | 1,485.4 | 216.2 |
| 종가[1)] | 1,493.6 | 216.7 |
| 전일비 | -3.9 | 0.1 |
| 평균환율 | 1,491.6 | 216.7 |
| NDF(1M) | 1,486.3 | |
| 거래량 | 184(억불) | 397(억위안) |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 주요 통화 환율

| 통화 | 환율 | 전일비 |
|---|---|---|
| USD/KRW | 1,488.25 | -11.00 |
| JPY/KRW | 936.24 | -2.70 |
| EUR/KRW | 1,715.77 | 1.55 |
| GBP/KRW | 1,987.94 | 0.39 |
| AUD/KRW | 1,057.57 | 2.31 |
| CAD/KRW | 1,087.29 | -3.04 |
| USD/JPY | 159.00 | -0.07 |
| EUR/USD | 1.1540 | 0.0035 |

##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 만기 | IRS | 전일비 | CRS[2)] | 전일비 |
|---|---|---|---|---|
| 1Y | 3.080 | 0.045 | 2.495 | -0.02 |
| 2Y | 3.339 | 0.020 | 2.735 | -0.03 |
| 3Y | 3.470 | 0.013 | 2.895 | 0.00 |
| 4Y | 3.534 | 0.015 | 3.000 | 0.00 |
| 5Y | 3.575 | 0.012 | 3.095 | 0.01 |
| 7Y | 3.619 | 0.015 | 3.110 | 0.00 |
| 10Y | 3.665 | 0.018 | 3.090 | 0.00 |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 구분 | 종가 | 전일비 |
|---|---|---|
| CD 91일물 | 2.83 | +0.01 |
| 통안 1년 | 2.18 | 0.00 |
| 통안 2년 | 3.15 | +0.00 |
| 국고채 3년 | 3.33 | +0.02 |
| 국고채 5년 | 3.58 | +0.02 |
| 국고채 10년 | 3.70 | +0.02 |
| 국고채선물(3년) | 104.28 | +0.08 |

##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 만기 | SWAP Point | 전일비 | Implied CRS |
|---|---|---|---|
| 1M | -130 | -5.00 | 2.65% |
| 3M | -440 | -30.00 | 2.53% |
| 6M | -900 | -20.00 | 2.50% |
| 1Y | -1,680 | -40.00 | 2.51% |

##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 만기 | 국채 | 전일비 | IRS[3)] | 전일비 |
|---|---|---|---|---|
| 1Y | 3.62 | -0.006 | 3.62 | 0.002 |
| 2Y | 3.67 | -0.043 | 3.49 | 0.002 |
| 3Y | 3.68 | -0.056 | 3.45 | 0.001 |
| 5Y | 3.79 | -0.068 | 3.48 | -0.010 |
| 10Y | 4.20 | -0.078 | 3.74 | -0.017 |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 주요 증시

| 증시 | 종가 | 전일비 | |
|---|---|---|---|
| KOSPI | 5,640.48 | +90.63 | +1.63% |
| 미국 DOW | 46,993.26 | +46.85 | +0.10% |
| 중국 상해종합 | 4,049.91 | -34.88 | -0.85% |
| 일본 NIKKEI 225 | 53,700.39 | -50.76 | -0.09% |
| 영국 FTSE 100 | 10,403.60 | +85.91 | +0.83% |

## 기타

| 종목 | 종가 | 전일비 |
|---|---|---|
| WTI (선물) | 96.21 | +2.71 |
| 금 (선물) | 5,008.20 | +6.00 |
| 3M TERM SOFR | 3.69 | +0.00 |
| 3M EURIBOR | 2.16 | 0.00 |
| KOR 5Y CDS | 28.61 | -0.60 |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